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온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완도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 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이 준공을 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회관 준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신 무공수훈자회 **서영순**
건립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내 보훈단체장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관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강성운**
부군수님, **신의준**, **이철**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조영**

식, 김양훈, 박재선, 최정욱, 박병수, 지민 동료의원님과 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먼길 마다하지 않고 완도를 찾아주시고 보훈회관 준공식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광주지방보훈청 정홍식 청장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각 보훈단체 지부장님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훈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완도군은 구국, 애국, 보훈의 모범군입니다.

완도는 일제감정기 부산 동래, 함경도 북청과 함께 가장 극렬한 독립 투쟁을 펼친 항일운동의 3대 성지로 꼽히고 있으며 그 뜻을 기리고자 소안·신지·고금·약산 권역에는 항일운동기념탑이 들어섰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렇게 보훈회관이 멋지게 준공한 것을 보면 정말로 완도는 구국, 애국, 보훈과 인연이 있는 곳이 맞는 듯 합니다.

오늘 준공된 보훈회관에서 입주하게 될 9개 보훈 단체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고, 일으키신 보훈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정신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보훈가족 여러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완도군 보훈회관 준공**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